취향이나 욕망마저 조작되는 사회

다음은《책 읽어주는 여자》(김화영 옮김, 세계사)를 쓴 프랑스 작가 레몽 장의 텔레비전 영화용 시나리오 줄거리로, '출판조작'의 문제를 소재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다(《책 읽어주는 여자》의 부록에 실린 레몽 장과 김화영의 대담에서 요약 · 인용한다).

한 청년이 서점에 들어가서 신간소설 한 권을 슬쩍 훔쳤다. 《청과 흑》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뻔뻔스럽게도 그냥 책만 훔친 것이 아니라 서점을 나오면서 주인에게 《청과 흑》이라는 소설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주인은 그런 소설은 없다고 대답했다. 청년이 훔쳐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 후 청년은 한 회사에 타이피스트로 일하는 여자친구에게 부탁해 그 소설 한 권을 몽땅 다 깨끗한 백지에 타자로 옮겨 쳐달라고 부탁했다. 여자친구는 너 미쳤느냐, 요즘처럼 복사기가 발달된 세상에 책 한 권을 전부 다 타자로 옮기다니… 하며 거절했지만 청년은 마침내 여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여자는 고생스럽게 책 한 권을 다 옮겨 쳤고 청년은 그 원고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어서 그 책을 펴낸 출판사에 투고했다. 그랬더니 얼마 후 출판사에서 답장이 왔다. 재능이 엿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글이 미숙한 데가 많고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부족하므로 출판은 불가능하다는 회답이었다.

청년은 그 원고와 회답을 들고 원작자를 찾아갔다. 나는 평소에 당신의 작품을 즐겨 읽고 당신을 존경하는 팬이다, 그런데 그만 내가 공연한 장난을 쳐서 당신에게 누를 끼치게 됐으므로 사과하러 왔다, 라고 말하면서 그 원고와 회답을 작가에게 보여줬다. 그러자 작가는 노발대발했다. 하지만 차츰차츰 작가는 청년에 대해 호감을 느끼게 되고 두 사람은 친한 사이가 됐다. 드디어 두 사람은 문제의 소설을 서로 상의하면서 다시 썼다. 서로 세대가 다르므로 소설은 특히 청년의 새로운 시각에 따라 여러 군데가 수정돼 완성됐고 이번에는 《청과 흑》이 아니라 《청흑》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다. 두 사람 가운데 그 어느 쪽의 작품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이 개작소설은 출판돼 크게 호평을 받았다.

한 청년이 서점 주인과 출판사, 작가, 독자를 농락한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스탕달의 작품을 그대로 옮겨 써서 투고했다가 딱지 맞은 실제 사건을 각색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자서전 대필업이 목하 성업중이고 최근에는 사재기를 통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도 시나리오 속의 상황과 그리 멀지는 않은 셈이다.

이제 하나의 창작품을 둘러싼 아우라는 영영 사라져버린 것일까. 우리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욕망마저도 언론매체나 생산자들에 의해 조작되고 통제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표절이 혼성모방이란 예술형식으로 둔갑하고, 베스트셀러 조작이 탁월한 마케팅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벌써 우리 문턱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 박천홍 기자

1991년부터 쌓아 온 한국프리랜서그룹의
노하우는 「부끄럽지 않은 품질」 입니다.

편집 디자인(사보, 사사, 홍보물, 교재 등) ●자서전, 회고록집필 ●교정 · 교열 · 윤문
●사사(社史)집필제작 ●취재대행 ●DB자료입력 ●사보제작 ●번역

Since1991
(주)한국프리랜서그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1-11(한서빌딩1105호)
Tal:(02)784-4447 Fax:(02)784-4404
E-mail: kfb@koreafreelancer.com
www.efreelancer.co.kr

※각 분야 전문가 모집(홈페이지 접수)